

NC·두산 '천적 관계' 청산... 넥센 공포증 극복하라



KIA 전반기 결산

38승1무44패로 끝난 '예측불허'의 전반기였다. '최하위 후보'였던 KIA는 NC와의 개막전을 통해 5강 후보로 급부상했다. 특급 외국인 선수 핵타를 앞세워 우승후보를 압도하는 경기력으로 1승1패로 스타트를 끊었던 2016시즌. 윤석민-양현종 투총원투펀치와 새 얼굴 지크로 막강 선발진을 구축한데다 행복한 5선발 고민까지 하면서 화려한 봄날이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9위 자리에 익숙했던 KIA다. 길어진 윤석민의 어깨 부상 속 김윤동·임준혁도 부상에 신음하면서 4·5선발 고민에 빠졌다. '임시 선발'로 설명할 수 있던 전반기 마운드가 되었다. 어렵게 꾸려온 마운드에도 희망은 있었다. 불펜에서 전전후 활약을 해줬던 흥건

마운드

개막전 천적 NC에 1승 1패... '행복한 봄날'도 잠시

윤석민 부상 등 4·5선발 구멍... 임시 선발로 버텨

급성장 홍건희·버터준 불펜... 임창용 가세는 큰 힘

방망이

이범호·서동욱·김호영 등 신·구 고른 활약에도

'들쭉날쭉' 타격 페이스에 1~3 선발 내고도 고전

희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선발 한자리를 차지했고, 위기의 불펜도 분전을 이어가면서 힘을 보탤다. 타이거즈 선수로 돌아온 임창용도 점점 매서움을 갖춰가고 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타격이 예측불허 행보의 주범이었다.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도 '극과 극'

공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A는 7월8일부터 잠실에서 전개된 두산과의 원정 3연전에서 31 득점을 만들며 두산전 8연패에서 탈출, 워닝 시리즈를 가져왔다. 보크 오심만 없었더라면 싸움이 3연승까지 가능했던 뜨거운 기세였다. 토타자 김호영이 잠실 구장을 두 차례 넘기는

등 고구고루 타선이 터졌던 만큼 안방에서 치르게 될 SK와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2.5개일차에서 만나게 된 4위 SK와 5위 KIA의 맞대결. 그러나 예상과 달리 똑 떨어진 타격 페이스에 양현종-해타-지크를 내고도 1승을 거두는 데 그쳤다. 롯데에 5위 자리를 내줬고, SK와의 격차는 3.5개일차까지 벌어졌다.

어찌 됐든 묵직한 타선의 힘은 후반기를 기대하게 하는 전력이다. '수비형' 김호영의 타격 재발견 속에 부상을 앓은 김주찬이 중형무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범호와 나지완도 파워히터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무조건' 트레이드로 친정으로 돌아온 서동욱도 복당이다.

지난 시즌 삼성과의 천적관계를 정리했던 KIA는 지난 마산 원정에서 싸움이 3연승에 성공, 4승4패로 NC전 열세에서도 벗

어났다. 전반기 마지막 원정에서 두산에 상대로 자신감을 얻은 것도 큰 소득이다. 문제는 넥센 공포증이다. 김주찬의 사이클링 히트와 한기주의 1401일 만의 세이브로 시즌 첫 만남에서 승리를 가져왔지만 이후 내리 9연패다. 넥센전에서 윤석민-양현종의 완투패, 한기주의 한 경기 만루 홈런 2개, 임창용의 불륜세이브 등 마운드 잔혹사가 남았다.

KIA는 지난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후반기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다. 17일 휴식을 취한 선수단은 19일 오후 훈련 후 후반기 첫 상대인 롯데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떠나고 있다. 전반기 마무리하면서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반가운 손님들도 경기장을 다녀갔다. 지난 주중 광주를 찾은 경찰청 안치환에 이어 16일 상무 김선빈이 휴가를 맞아 챔피언스필드를 다녀갔다.

'캠핑' 이범호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큰 일 없이 전반기가 흘러간 것 같다. 개인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KIA 김원섭이 9회말 끝내기 안타로 팀을 승리를 이끌어내고 이흥구 등 동료선수들의 물세례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적으로도 슬럼프 없이 전반기를 잘 치렀다. 하지만 나 혼자 3할, 30홈런을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 성적은 의미가 없다"며 "전반기를 생각하면 넥센전이 가장 어렵다. 잘 이겨내야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래도 앞으로 만회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후반기가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두산 민병현 올스타전 MVP

나눔, 드림 올스타에 4-8 패 2홈런 등 3타수 3안타 2타점 KIA 김주찬 우수수비상 나지완 비거리상 수상



지만 드림 올스타의 화력이 더 강했다. 4회말 선두타자 김문호(롯데)의 중전안타와 민병현이 우중월 2루타로 만든 2·3루에서 최형우(삼성)와 양의지(두산)의 희생플라이가 나왔다.

드림 올스타는 3타자 연속 홈런으로 쉐기를 박았다. 5-2로 앞선 7회말 1사 후 박경수가 이재학(NO)의 직구를 공략해 왼쪽 담을 넘겼다. 후속타자 정의운(SK)과 1회 이미 솔로포를 터트린 민병현도 솔로포를 기록했다. 3타자 연속 홈런은 KBO리그 올스타전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드림 올스타는 이날 승리로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한 박경수가 우수타자로 선정됐고, 8회초 등판해 3타자를 삼진 처리한 손승락(롯데)은 우수투수로 뽑혔다. 박경수와 손승락은 상금 300만원을 쟁겼다. 김주찬(KIA)은 우수수비상 수상자로 선정돼 100만원 상당 한돈 제품을 받았다. 홈런레이스에 나선 나지완(KIA)은 예선전에서 135m의 장거리포를 쏘아 올리며 최장비거리상을 수상했다. 부상으로 캐논 DSLR 카메라-렌즈 세트(100만원 상당)를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FC 정조국, 시즌 최다골 '-1'

울산 원정서 13호골... 팀은 2-3 패

광주 FC의 베테랑 공격수 정조국이 개인 최다골 타이 기록을 세웠다. 정조국의 활약에도 광주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광주 FC가 지난 16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경기에서 2-3으로 졌다. 전반 37분 부상을 당한 조주영을 대신해 교체

투입된 정조국은 0-2로 뒤진 전반 40분, 송승민이 얻어낸 페널티킥 기회에서 키커로 나서 시즌 13번째 골을 기록했다.

이 골로 정조국은 FC 서울 시절이던 2010년 기록한 개인 최다 골 타이 기록이자 광주 FC 역사상 한 시즌 개인 최다골 타이 기록을 세웠다. 기존 광주의 최다골

기록의 주인공은 2013년 챌린지(2부리그) 시절 최정방을 담당한 루시오다.

그러나 정조국의 골행진에도 광주는 7월 무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울산 김승준이 1골1도움의 활약으로 전반 15분 만에 2-0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조국의 만회골이 나오던 2분 만에 다시 한

번 울산 이재성이 골망을 흔들며 광주의 추격을 따돌렸다.

지난 9일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던 조성준이 후반 7분 광주에서의 첫 골을 터트리며 환호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2-3 광주의 패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

류현진 두번째 상대는 '13연승' 스트래츠버그

21일 워싱턴 선발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재할 등판 두 번째 상대는 개막 13연승을 달리는 스티븐 스트래츠버그(28·워싱턴 내셔널스)가 될 전망이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2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다저스와 워싱턴 경기 예상 선발 투수를 17일 공개했다. 류현진은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이날 후반기 첫 등판이 잡혔고, ESPN은 워싱턴이 에이스 스트래츠버그를 내세울 것으로 예측했다.

스트래츠버그는 올해 17경기에 등판, 13승 무패 114.2이닝 평균자책점 2.51을 기록 중인 워싱턴 에이스다. 개막 후 13연승 행진을 벌이고 있는 스트래츠버그는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1위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전반기 막판 복귀한 류현진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다.

어깨 수술 뒤 재활을 마친 류현진은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복귀전을 치렀지만, 4.2이닝 8피안타 6실점으로 고전했다. 클레이턴 커크가 허리 부상을 털고 이번 주 복귀하면, 다저스도 선발 로테이션 조정이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이대호·강정호 무안타 '조용한 하루'

'코리아ൻ 버키'가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중심 타선에 출전했던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와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 무안타로 침묵했다.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선발 투수가 완봉승을 거두며 하루 휴식했고,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와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부상 때문에 경기에서 빠졌다.

이대호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 경기에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0-0으로 맞선 2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이대호는 휴스턴 선발 투수 랜스 맥컬러스를 상대로 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너를

커브를 정확하게 밀어줬지만, 우익수 정면으로 향해 몰려났다. 4회말 2사 1루에서 맞이한 두 번째 타석은 6구 대결을 펼친 끝에 삼진을 당했다. 팀이 선취점을 낸 6회말 1사 1루에서는 3루수 정면 땅볼 타구로 이번 시즌 5번째 병살타를 기록했다. 3타수 무안타에 그친 이대호의 타율은 0.288(184타수 53안타)로 떨어졌다.

강정호는 최근 4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쳤다. 강정호는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4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한 강정호는 시즌 타율이 0.244에서 0.240(171타수 41안타)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